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오는 3월 18일(목)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원 15주년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 건설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외 건설 경기 전망, 정책·제도의 발전 방향과 고용 창출 방안, 건설 및 주택산업의 미래 상품, 기술 예측 등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세션 ‘건설시장’에서는 제1주제로 ‘글로벌 건설 시장 전망과 선택’, 제2주제로 ‘국내 건설시장의 미래 변화 예측’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 ‘건설산업’에서는 ‘건설 정책·제도의 변화 추이와 향후 과제’, ‘건설산업 일자리 동향과 창출 전략’이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건설 상품’에서는 제5주제와 제6주제인 ‘2025 건설 상품과 기술 예측’, ‘주택·부동산 시장 및 상품의 현주소와 미래’ 등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제49차 연구원 이사회 개최

연구원은 지난달 17일 오후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권홍사 이사장 및 황인수 이사 등 15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9년 사업 추진 실적 및 2010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2009 회계 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린홈 확산에 따른 제도적 정비 방안 연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감리 등 공사관리 방식 검토기준 설명회’ 개최

연구원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대전 및 서울에서 ‘감리 등 공사관리 방식 검토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연구 결과의 일부인 ‘감리 등 공사관리 방식 검토 기준’ 내용을 주요 공공

기관의 발주 업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전건설영어」 제1권 발간

연구원은 1월 22일, 해외 건설시장 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영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과 국내와는 매우 다른 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실전건설영어1」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실전건설영어1」은 제1부 영문 서신 작성 기초편에서 서신의 작성 요령 및 형식, 구성과 순서, 각종 표현들을 담고 있다. 제2부 건설관리 서신 작성 실전편에서는 각종 서신 예문을 통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 서신에서부터 시공 관련 서신을 담고 있으며, 건축·토목 공종별 주요 서신의 예문도 담고 있다.

책의 구입 및 문의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또는 연구원 교육팀(02-3441-0691)으로 하면 된다. 